

전국 총지종 사원서 상반기 49일 불공

2월 19일 불공입재, 법상인 전수 육방예경으로 설법



▲ 정각사 법상인 전수 설법

전국 총지종 사원에서 2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상반기 49일 불공이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 49일 동안 치성드리는 불공은 총기 20년(1991) 1월부터 자손이 잘되어

큰 인물이 되며, 사업 성공과 경제향상을 위한 불공 기간으로 정하여 융맹정진하고 있다. 불공을 4월 8일에 마치도록 한 것은 부처님오신날을 양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부산, 경남 교구 정각사에서 49일 불공 입재를 했으며 주교 법상인 전수는 불교충전에 수록된 육방예경으로 설법을 했다.

정각사 신정회 지종영 회장은 “평상시에는 감사와 참회불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49일 불공 기간이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진호국가 불공에 자녀 잘되기를 기원하는 불공 아닙니까? 특히 나라가 대립과 갈등의 시기인지라 하루 빨리 젊은이들이 안정된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호국가불공 회향하고 나면 영주권을 받았다, 집을 구입했다 등의 좋은 소식이 항상 전해져 감사한 마음으로 불공합니다.” “회향으로 있으면서 항상 염원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보살님들의 가족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정각사 서원당을 다닐 수 있기를 늘 염원합니다.”며

일체중생 오세대 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염원했다.

49일 불공기간 동안 총지종은 총기 5년(1976) 4월부터 상. 하반기 서원사항에 ‘한국유엔의교승리’를 추가하고 수호국 계법(守護國界法)도 동시에 행할 것을 지시한 이후 지금까지 ‘옴홍야호사’진언으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 평화통일을 전 교도가 염원하는 서원 정진을 하고 있다.

<법상인 전수 설법 요지>

남편에 있어서 아내는 마치 극락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부간에는 더없이 좋은 청량한 낙이며, 돌아갈 수 있는 곳, 귀의하고 의존할 수 있는 안식처라는 뜻에서 극락이라 했습니다.

어진 부인은 가장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부인은 가장을 천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 가정에 부인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근본적으로 어진 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어진 부인의 덕성으로 인해서 이루어 지지만 재주 있는 사람은 덕이 부족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재주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 하지요. 여기서 재주는 껍데기를 부린다. 잔머리를 굴린다 등으로 해석이 되므로 바로 가정의 화합을 깨는 원인이 됩니다.

동서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머리 굴리며 이리저리 요리조리 빠지면서 우애있던 형제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 화목을 지키는 일에 있어 어찌 아내만 어진 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남편도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을 유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어긋

나는 것은 부모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임을 알고 참회해야 합니다.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원인이 되며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방편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불공 해보면 대부분 부모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이외에 형제간에 불화한 것, 부모에게 불효한 것 등 그 원인을 찾아 참회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진실하게 깨달아서 마음으로 참회하면 불순한 자녀들이 유순하게 된다는 경전의 말씀처럼 가정의 화목은 부인이 지혜롭게 유순해야 남편도, 자녀도 다 유순하게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9일 자녀 불공을 신청하신 분들은 불공기간 동안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내 허물이구나 하고 참회정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9일 불공 중에 진호국가 불공도 함께 하시면서 불보살님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열심히 불공 정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강(曉岡) 종령, 임기와 통리원 생활 마무리하고 대구 사가로

창종 당시의 정신을 후학들에게 33년간 전하는 업적 남겨

제11대 효강 종령이 종령 13.9년의 임기를 마치는 동시에 통리원 33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 12일 대구 사가로 떠났다.

서울경인 교구 승직자 일동은 전날 효강 종령을 예방해 인사를 나눴다. 효강 종령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사가 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는 “종령님. 항상 건강하시길 염원드립니다.” 며 건강장수와 복지구축을 기원했다.

효강 종령은 총기 14년(1985) 7월 20일 대법사를 승서 받으며 총지사 근무를 시작으로 총기 47년(2018) 2월까지 33년 동안 통리원 생활을 했다. 그중 13년 9개월 동안 종령을 역임했다. 중앙교육원장(총기15.4

월), 제5대 통리원장(총기15.9월), 제7대 통리원장(총기22.2월), 종령직무대행(총기22.10월), 법장원장 및 중앙교육원장(총기25.2월), 제9대 종령(총기33.5월), 제10대 종령(총기35.2월), 제11대 종령(총기41.2월)을 역임했다.

효강 종령은 “종단 내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잘한 것으로 종령으로 재임하는 13년 동안 통리원장 4명의 임기 보장을 통해 종단 안정화에 온 힘을 다한 것을 잘한 일로 기억한다.”며 종령으로써 종단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밝혔다.

양재범 각자는 통리원 처무로 근무하는 동안 종령의 모습을 회상하며 “새벽 4시만 되면 종령님 방에 불이 밝혀집니다. 염송하시는 모습을 하루도 빠지 않고 항상 그 시

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고 했다.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은 13년 동안 종령의 방에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꽃 공양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리 오랜 세월 한결같은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효강 대종사가 펼친 33년간 통리원에서 주요직적이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다.

총기 24년(1995) 5월 통리원장 시절엔 펜티엄 컴퓨터를 통리원 중무실에 도입해 정보화시대에 효율적 중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기 24년(1995) 10월 총지종보와 총기33(2003)년 11월 위드다라마 창간으로 문서 포교를 시작했다.

한일불교대회, 한중일불교대회, 국제재



▲ 1월 29일, 종조탄신대제 봉행시 법어 모습

가불교지도자대회 등을 통한 국제포교에 앞장서기도 했고 불교텔레비전(BTN) 개국 이사중단, 불교방송(BBS) 이사를 하면서 방송 전파를 통한 부처님 법을 온 세계

에 알렸다.

부산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내 동해사를 개설하고 정사를 교법사로 파견해 꺼져가고 있는 불교 학교에 법당조성과 종교교사

파견이라는 깜짝 놀랄 업적을 남겼다. 이는 부산 지역 불교학교 재단에 반향을 일으킨 대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총기28(1999)년 5월 29일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오투기센터, 재가복지센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으로 복지포교의 기원을 마련하였다.

항상 염원하던 종조 원정 대성사님을 기리는 원정기념관을 총기33(2004)년 12월 2일 총지사 2층 옛 서원당 자리에 개관했다. 기념관에 종조님 진영을 모시고 유품을 정리하여 전시했고 종조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옛 총지사 서원당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총기46(2017)년 1월 12일 원정공덕비 건립이 완공되어 가지불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효강 대종사는 총기41(2012)년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전개해온 새 종풍 운동으로 창종 당시의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헌신 종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교정부장=법일 정사

종/조/법/어

만족함을 바라거든 탐욕 내지 말것이며
내가 화합 바라거든 진애심을 내지 마라

지/면/안/내

3면 통신원 워크숍 3면 BTN 신년하례법회 9면 동해중 졸업식 11면 통신원 소식

상반기 49일불공, 진호국가불공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

상반기 49일 불공과 진호국가불공의 진언염송 공덕으로
나라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이루고,
교도가정에 일체재난이 소멸하고 자녀 잘 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7년 2월 19일 ~ 4월 8일 매일 10시
장소 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고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국보 승격 불교미술사 중요 정보 가치, 대범한 미의식 국보 가치 충분



고려시대 최대 석불입상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1963년 보물 218호로 지정된 지 55년 만이다.

높이가 18.12m에 달하는 고려시대 최

정도로 굵고 귀는 어깨까지 내려왔는데 이는 당시 유행했던 조각법으로 보물 제 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고려 전기 충청 지방에서 조성된 석불 입상들의 모델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 석불입상인 이 불상은 고려 광종 때인 968년 공사를 시작해 1006년 완성됐으며 일명 '은진미륵(恩津彌勒)'이라고도 불린다.

압도적 크기의 화강암에서 느껴지는 육중함으로 고려의 권위와 상징을 보여주는 이 불상은 좌우로 뻗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보관(寶冠)을 썼고 두 손으로 청동제 꽃을 들고 있다. 얼굴은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삼각형이며 코는 넓고 눈은 옆으로 길게 찌진 명료한 이목구비로 멀리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몸에 비해 머리와 손발이 상당히 큰 것도 특징이다. 목이 지나칠 정도로 굵고 귀는 어깨까지 내려왔는데 이는 당시 유행했던 조각법으로 보물 제 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고려 전기 충청 지방에서 조성된 석불 입상들의 모델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상은 정제미와 이상미를 추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과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 독창성과 완전성이 뛰어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무의 스님이 쓴 '유화회소와 고려 말기 문인 이색(1328~1396)의 '목은집', 16세기 조선 초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의하면 불상은 고려 광종의 명으로 조각승 해명(惠明) 스님에 의해 조성됐다. 해명 스님은 1025년(고려 현종 16)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를 제작했다고 알려졌으며 당시에는 저명한 장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문화재청은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정제미와 이상미를 추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과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어 한국 불교신앙과 조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한, 독창성과 완전성이 뛰어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보 가운데 고려시대 불상은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제45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제48·2호),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제58호), 금동삼존불감(제73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제124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제308호) 등 6점뿐이다.

일연 스님 저술 '삼국유사' 국보 승격 삼국사기도 함께... 불교 경전·경함 보물 지정

고려 고승 일연 스님의 저서인 <삼국유사>가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경전 모음집과 경전을 보관했던 나전경함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3권을 국보로 승격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등 8권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문화재는 <삼국유사> 1권과 <삼국사기> 2권이다. 국보 제306·3호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 1~2>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총 5권 중 권1~2만 남아 있으나 결장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고승 일연 스님이 1281년(충렬왕 7년)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역사·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한 역사서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2권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임신본(壬申本)으로 알려진 <삼국유사>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2권의 다른 삼국유사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보 제332·1호로 지정된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년) 경주에서 인출해 육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조선 태조와 1512년(중종 7년)에 개각한 판(版)과 고려 시대의 원판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국보 제322·2호 <삼국사기>도 유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인출한 책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경전 모음집과 불교 공예품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 1968호로 지정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1370년(공민왕 19년)에 제작·추

정되는 첩(帖)으로, 고려 시대 유행한 각종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경전 모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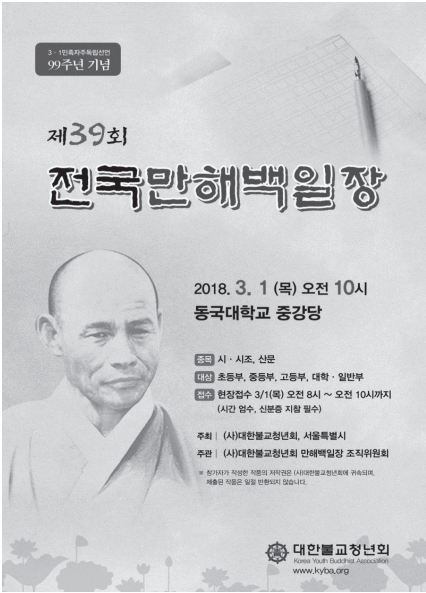
보물 제1975호 '나전경함(螺鈿經函)'은 고려 시대 대장경 등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함이다.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의 알려진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 안팎에 불과해 이번 보물 지정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다.

이밖에도 '이광사 필 서결'·'김홍도 필 마상청앵도'·'김홍도 필 고사인물도'·'신윤복 필 미인도' 등도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국보, 보물로 지정된 11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해 스님 정신 글로 계승한다

대불청, 3월 1일 동국대서 전국만해백일장 개최



31운동 99주년을 맞아 투철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사상가로 한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백일장이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동국대 중앙당 및 강의실에서 제39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백일장은 1979년 3월1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39년째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6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가자들은 시·시조, 산문분야에 초·중·고등부 및 대학 일반부로 나뉘어 실력을 뽐낸다.

만해백일장은 특히 고등부의 경우 우수상 이상 수상 시 대학입학 특기자 전형에서 가점 요인이 되면서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다. 2003년부터 참가자들 작품 표절 방지를 위해 중등부부터 감독관 감독 아래 강의실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오전 10시 31절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11시부터 본격적인 백일장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오후 2시까지 원고를 마감해 제출해야 한다.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상식은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한마음선원 새해 희망 밝히는 촛불재 거행

2월 16~18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서

한마음선원(재단 이사장 해수)은 2월 16 ~ 18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2018 촛불재를 개최했다.

촛불재는 저녁 예불 후 신도 대중이 함께 모여 촛불을 켜고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 밝아지기를 발원하는

행사이다. 촛불재는 대형 스님의 원력으로 1980년대 시작됐으며 매년 한마음선원 본원과 전국 지원에서는 촛불재를 통해 새해 희망을 나누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있다.

이날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해수

스님은 “촛불을 걸으며 타오르며 밝히는 물체 뿐만이 아니라 마음 속의 지혜이자 희망”이라며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했다.

티베트 성지 ‘조강사원’ 대형 화재

원인·피해규모 등 정확히 알려진 바 없어...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티베트의 조강사원(大昭寺)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수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중국 당국이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규모 등 사건 내역을 철저히 통제해 실제 피해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더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 쯤 중국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拉薩)의 조강사원 뒤쪽에 있는 승려들 숙소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강사원은 황금색

지붕의 사원으로 티베트 예술의 세련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물들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건물 내부에는 신화와 전설 및 불교 고사를 묘사한 벽화가 가득 차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목격자들은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불길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관련 뉴스와 영상이 중국 웨이보(微博·중국SNS) 등에서 공유됐지만, 당국이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티베트(CCTV)'는 화재 소

식을 짧게 전하면서 전날 저녁까지 모두 진화됐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나 경내 유물 피해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강사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원후 7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조강사원은 부처님의 12살 때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과 정교한 벽화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다. 티베트인들은 조강사원에서 오메투지순례를 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생각한다.

특히 조강사원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이 잦아 중국 당국이 삼엄한 경계를 띄는 곳이다. 지난 2008년 엔 승려들의 독립 요구 시위 끝에 공안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부르기도 했다. 2012년에도 중국의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2명이 조강사원 앞에서 분신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뉘요

개 천 사

전 세 형

2/5

30,000

이 복 남

2/19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2/9

10,000

인 선

2/19

20,000

기로스승

해 정

1/24

10,000

원 봉

1/29

10,000

지 선 행

1/29

10,000

효 강

2/12

300,000

법 계 월

2/12

200,000

상 지 화

2/19

10,000

수 중 원

2/19

10,000

밀 공 정

2/19

10,000

총 지 화

2/19

10,000

법 수 원

2/19

10,000

선 도 원

2/19

10,000

법 지 원

2/19

10,000

일 성 해

2/19

10,000

불 멸 심

2/19

10,000

사 홍 화

2/19

10,000

안 주 화

2/19

10,000

원 봉

2/20

10,000

지 선 행

2/20

10,000

동 해 사

탁 상 달

2/13

20,000

밀 행 사

무 명 씨

2/14

10,000

백 월 사

김강미자

1/30

10,000

신 운 산

2/4

10,000

법 천 사

김 정 숙

2/13

10,000

법 황 사

박 미 경

2/19

10,000

성 화 사

이 학 열

1/23

10,000

허 태 연

1/23

20,000

수 인 사

정 순 득

2/19

10,000

실 보 사

무 명 씨

2/1

200,000

실 지 사

정 경 자

1/24

10,000

박 병 성

1/24

20,000

운 천 사

이 성 미

1/23

50,000

일원어린이집

김 용 미

1/25

10,000

하 재 희

1/25

50,000

구 미 자

1/31

10,000

정 각 사

안 한 수

2/4

10,000

지 인 사

승 효 제

1/29

10,000

허 성 동

2/12

30,000

승 효 제

2/20

10,000

총 지 사

무 명 씨

2/7

50,000

신 용 도

2/14

10,000

박 정 희

2/14

10,000

이 수 경

2/14

10,000

손 경 옥

2/14

10,000

원 당

2/19

10,000

모 심 해

2/19

10,000

화 음 사

신정화방영

2/10

185,000

최 영 미

2/12

50,000

강 승 훈

2/12

5,000

강 승 민

2/12

5,000

홍 국 사

지 정

1/29

20,000

지 정

2/20

20,000

사원무기명

박 필 남

2/10

10,000

김 갑 선

2/19

10,000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충지정보 통신원 워크숍,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개최 전국 사원에서 교도기자단으로써의 역할 수행하게 돼



▲ 통신원(교도기자단)

불교충지종 통리원 주최, 충지종 중보실 주관으로 개최된 통신원 워크숍이 2월 2-3일,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이루어졌다.

혹한의 추위에도 전국에서 모인 통신원들은 앞으로 충지정보 교도기자단으로써의 역할을 각자 사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통신원 워크숍을 통해 종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판 인쇄물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통신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워크숍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통신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종단의 발전과 위드코로나, 충지정보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통신원 목적과 향후 방향 설명, 종보와 위드코로나 독자층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사원과 교구 소식을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SNS개정 개통의 시간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후 3시경부터 진행된 뉴스파인더 공동대표인 유동균·김승근 대표의 강의는 ‘미디어 동향과 기사의 유형과 종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이선희 실장은 통신원 소임과 역할을 설명했고 감사위원 도원정사는 종단 출판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충지정보 3월호 판형 구성 설명과 시현, 기사 배치 등을 실습하고 통신원 공동 연락처인 SNS를 개통하여 사원 또는 교구 소식을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논의 결정된 사항으로 매월 1회 통신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서울 경인은 2월 28일 통리원 중보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은 3월 1일 자석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충지정보 지면에 통신원 소식란을 만들어 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부산 경남 통신원 한미옥 대표는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 통신원 대표로 뿔뿔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동안 통신원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승단의 관심과 함께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리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을 밝히며 통신원 활동의 각오를 다짐했다.

충지종 승직자 97명, 종교인 소득 과세 납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2월 10일 종단 성직자들에 대한 종교인소득 과세납부액을 신고납부했다. 종단 성직자 97명이 납부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종교인소득 과세납부는 매월 10일 신고하게 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인,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

득 중에서 택해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 후에는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납부한 종교인 소득세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말한 다. 종단 종교인소득 과세 일을

맞은 김우태 세무사는 “지급의 종교인소득 과세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과세액 부담 증가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나혜 진언행자, 독일 국립음악대학 입학연주회서 1등 제석사 김수자 회장 외손녀로 ‘엑자맨’ 과정 입학

제석사 김수자 회장 외손녀 박나혜(28세) 진언행자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엑자맨 최고연주자과정 입학연주회에서 1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나혜 진언행자는 이화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독일 유학중이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한 독일에서 4번째로 오래된 전통있는 학교이다. 1857년 설립되어 1889년 왕립음악원이 되었다. 1921년 뷔르템베르크 음악대학으로, 1938년에는 국립음악대학이 되었다. 독일 종합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 최고과정

입시 박사학위를 받는다. 국립음악대학 최고과정 졸업시 엑자맨(Konzertexamen)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에서 일컫는 ‘최고 연주자 과정’에 해당된다. 국립음대 학업기간은 학사 4년, 석사 2년, 엑자맨 2년 과정이다.

제석사 통신원=반병하

BTN불교TV, 신년하례법회 및 붓다회포럼 발대식 개국 23주년을 맞아 전법미디어 개척 위해 붓다회포럼 창립



▲ BTN신년하례법회 및 붓다회 포럼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불교텔레비전 방송국 개국 이사중단으로 참석하여 ‘BTN불교TV개국 23주년과 붓다회포럼 발대식’을 축하했다.

BTN(대표이사 구본일)은 2월 22일 서울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붓다회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와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강창일 의원, BTN프로그램 출연자, 자원봉사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BTN 개국 23주년과 붓다회포럼의 발전을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신년법문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법보시는 이 세상 최고의 공덕을 짓는 일이고, BTN은 영상미디어를 통해 진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는 부처님이 전한 진리를 수용해 부단히 연마하고 연마한 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준 BTN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 길에 동행하겠다”고 격려했다.

BTN 구본일 대표이사 신년사를 통해 붓다회포럼 발족을 선포했다.

구 대표는 “BIN은 지금까지 정법을 수호하고, 세상을 맑게하는 방송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불교계의 공익방송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껏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BIN은 부처님의 법으로 사회 공익을 실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밝히며 붓다회포럼의 발족을 선포했다. 그리고 “붓다회포럼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 가르침으로 공유하고 지혜를 찾는 야단법석의 장입니다. 올 한 해 불자들의 방송으로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BTN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며 사부대중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붓다회 자문위원장 종상 스님은 자문위원 성행 스님이 대독한 선언

문에서 “그동안 실천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붓다회 활동을 좀 더 고도화하고 사회와 미래불교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경받고 명망 있는 지도자들과 붓다회포럼을 구성했다”며 “붓다회포럼은 BIN이라는 차세대 전법미디어를 기반으로 붓다회가 무엇을 할지 100년의 대계를 구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붓다회 자문위원),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붓다회 자문위원), 선우용영·김홍국 붓다회 홍보위원장(대한가수협회 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한편 본 법회를 시작점으로 100만 방송포교사 BTN 붓다회는 불교미래를 위한 방송포교와 공익불사를 실천하고자 ‘차세대 방송을 대비하는 방송포교’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층 포교’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포교’ ‘불자답게 함께 사는 복지포교’ 등 BIN 붓다회 4대 사업영역을 전개한다.

한국종단협의회 이사회, 통리원장 인선 정사 참석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2월 27일 10시 30분 ‘2018년도 제54차 정기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안건으로 상정된 종단협의회 정관개정과 임원변경, 2017년도 세입, 세출부 회계결산, 종단협 의전순서, 제21차 한중일 예비회

의 개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회 봉행, 불기2562년 봉축행사 봉행, 회원종단 대한불교 연수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통리원 2017년도 결산 사무지도감사 수검

불교충지종 통리원은 2017년도 수입, 지출 결산 사무지도 감사를 2월 27~28일 양일간 통리원 중

무실에서 사감원으로 부터 수검 받았다.

사감원은 매년 통리원에서 집행한 1년의 중무행정

에 대한 결산 지도감사를 시행하여 중무행정의 적정성, 예산의 집행과 부적합 등을 살핀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동해중학교 이사장), 동해중학교 이사회 소집 및 상정안건 결의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동해중학교 이사장)는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회를 2월 26일 오후 2

시 개최, 법인실에서 이사회 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퇴직교사(김재근 교감, 한문술

수학) 퇴임승인과 신입교사(조형진 영어, 윤중석 역사) 승인을 심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백룡산악회

매월 셋째주 자성일 오후 등산

산악회장 : 이종호 각자
산악회 총무 : 손강의 각자

전화: 02-889-0211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지상 설법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 닦는 것이다

“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



덕화사 주교 시정 정사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 닦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집착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집착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 닦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집착하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함으로 만족하고, 또 그 만족함으로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힘든 굴레이지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곳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검사는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지만 그들조차 한 순간에 일어나는 욕심,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신문 헤드라인에 불경스러운 일로 오르내리기 일쑤입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지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 온갖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고물을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쌓아놓습니다. 처음엔 환관에, 곧 주방에, 거실에 결국은 안방까지 내어줍니다. 고물에게 말합니다. 곧 고물은 온 집안을 점령하여 잠 잘 곳도 마땅치 않게 됩니다. 참으로 폐괴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혜가 없어 욕심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우리는 고통 속에 살게 되지요.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물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형성된다 하였습니다.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결국 어느 한 쪽의 부분이 와해되면 인연이 다 하여 모두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인연이 다 하여 소멸될 것들에 마음 쓰고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지당한 것입니다.

개개인 모두가 꿈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사물에 모두가 집착합니다.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돈, 내 집, 내가 소유하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씁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그릇되거나 떠나가면 괴로워하고 고통 받기 일쑤지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모양을 갖춘 사물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불자 입장에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봅시다. 내가 주장하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났고 인연이 다 하면 공하여 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있는 것들은 모두가 변하게 되어있고 영원불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집착하거나 마음을 쓰게 되면 그릇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이든 영원토록 나를 충족시킬 순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매달립니다. 어떤 것은 가족이란 이유로 매달리고 열매이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 생

각하며 집착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부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하찮은 것들입니다.

불공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회하고 업장 소멸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불공보다 채우는 불공을 더 많이 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불공, 손자를 위한 불공 다 좋습니다만 본인을 먼저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 내 손자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도를 넘어선 애정과 집착은 결코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인생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공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남편, 손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국 그 지혜 속에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욕망과 다름이 없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 수 있지요. 끊임없이 스스로 업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

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뗏목의 비유를 들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다.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뗏목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비구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써 교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사유경)

인과법(因果法)을 따르는 행복한 삶

“인과법 용어는 같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천차만별”
“인과의 폭과 깊이 더할수록
바른 삶 사는데 도움”

세상에는 늘 한결같이 적용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因果法)이 있다. 낮과 밤의 교차라든가 밥을 먹으면 소화하고 배설을 하는 신진대사 등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인과법칙을 따른다. 우리의 내면 정신세계가 수행을 통해 인과의 계발을 성취하는 것도 인과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진실한 도리에 맞춰 산다면 누구나 행복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이 성취되기에는 너무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갖가지 이유로 우리는 인과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체득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비롯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회의론,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라는 우연론 등을 숭앙하는 이들이 있다. 또 총론에서는 인과법칙을 인정해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중구난방인 견해가 난무한다.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과법칙은 근대과학에 입각한 과학적 인과론으로 과학명명의 눈부신 성과를 이뤘지만 이 역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뉴턴식의 기계론적 인과론은 인간과 세계를 기계처럼 다루는 등 세상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더구나 미립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에 불과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더구나 세상에는 인과를 자기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세상이 절대자의 의지나 설계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거나 내지는 특정인이 생각하는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려 하기보다 자기

의 신앙이나 소망을 덧씌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인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행복을 구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인과를 밝혀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인과가 작동하는 새로운 사례들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무지의 얽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인간의 몸을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만 파악하던 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뇌와 장 뿐 아니라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까지 뇌-장-미생물의 상호작용까지 밝히며 이전 신체관에 따른 의학기술로는 대처하지 못하던 증상을 치유하고 부작용도 개선하는 등 의학기술의 발전이 쌓이고 있다.

때로는 인과의 원리를 어긋난 듯이 보여도 잘 보면 그 속에 인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물이 중력의 힘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러한 중력에 반발해 하늘 높이 아름답게 물을 쏘아올리는 분수에도 복잡한 인과의 원리가 담겨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인과의 전모를 아는 일체지(一切智)를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환기할 절은 우리가 모든 인과법을 낱알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 배운 만큼 이해하고 실천하고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확신을 가진다면 그만큼 회멸을 느낄 수 있다. 경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수많은 실려 있으니 우리 모두 지혜를 밝혀 나가는 데 용기백배 정신하기를 다짐해 본다.

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通佛敎)적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나 『수능엄경』에서는 33응신 또는 32응신으로 보문시현하는 응화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음의 적극적인 중생구제를 위한 구도현신(求道現身)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관음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밀교시대에 이르러 관음신앙은 힌두교의 영향이 커진 굽타 왕조(5세기-7세기)에 들어와서 불교에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 수용되고 불교의 불신관(佛身觀)과 결합하여 관음은 여러 가지 변화관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관음은 인간의 구제자 뿐만이 아니라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의 육도 중생(六道衆生)의 구제자이다. 이에 따라 관음은 육도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여섯 가지 화신의 변화된 모습을 갖추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육관음(六觀音)이라 부른다.

육관음은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의 육자장구(六字章句)에서 유래한 것으로 관음은 여섯 관음으로 화현하여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자장구의 여섯이란 여섯의 주(呪)가 아니라 여

섯 관음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 천태종의 개조 지의(538-597)대사의 마하지관을 장안이 주석한 관심문에서 육자장구를 대비관음, 대자관음, 자무의관음, 대광보조관음, 천인장부관음, 대범심원관음의 육관음으로 설하면서 이 육관음을 중생들이 윤회하는 여섯 세계인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 세계의 육도에 각각 대비시켜서 설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육관음이 육도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육도에 화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힌두교의 요소를 흡수한 밀교의 육관음은 본래의 관음을 성관음 또는 정관음이라고 하고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준제관음, 여의륜관음 등으로 준제관음 대신에 불공견색관음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불공견색관음을 포함시켜 칠관음으로 하기도 한다.

이들 육관음을 육도에 대비시켜서 지옥중생의 구제자로 성관음, 아귀중생의 구제자로 천수관음, 축생중생의 구제자로 마두관음, 아수라중생의 구제자로 십일면관음, 인간세계의 구제자로 준제관음, 천상세계의 구제자로 여의륜관음으

로 각각 육도에 대비시켜서 육도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서 기술한 지의대사와는 육관음의 명칭이 다른데, 이것은 밀교에서 힌두교의 시바(Siva), 비슈누(Vishnu) 등의 신들을 수용해서 관음의 형상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육관음을 육도에 대비 시켜서 육도 중생의 구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관음신앙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후 계속하여 밀교에서는 양류, 용두, 백의, 수월관음 등의 33변화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보문시현하는 관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변화관음은 변화신의 숫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음의 변화신은 중생구제의 대비원력에 따라 천백억 화신의 무량한 모습으로 나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음보살의 모습은 중생구제력의 범위가 육도의 일체 중생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생구제의 대비원력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관음보살은 다양한 변화관음

의 모습으로 관음의 구제력이 상승되어 관음신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육도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고통받는 육도중생들을 구도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다. 이것은 관자재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육관음의 여섯가지 덕상의 모습을 갖추어서, 중생과 상응한 몸을 나타내어 구제하는 대비행의 실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을 지니고 있으며 육자대명다라니가 관자재보살의 미묘본심임을 설하고 있다.

이것은 육관음의 육도중생 구제활동을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의 여섯 글자에 수용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전통적 관음신앙을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의 지송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이 육도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는 진언임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



이 당시의 불교를 이끈 거장으로 의상(625-702)과 원효(617-686)를 들 수 있다. 의상은 한국 화엄종의 기초를 닦은 승려이다. 그는 학문을 대성함과 동시에 제자를 양성하고 대중 교화에 힘쓰며,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도 힘쓴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사물은 차별될 수 없다는 평등사상과, 상호 연관성을 중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후에 고려의 화엄종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신앙적 실천이 관음신앙을 대중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 및 동해-용왕 신앙과 결합시킨 의상의 민족적 관음 신앙에 힘입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장의 문수 보살, 불국토 신앙이 사대주의적 요소로 인해 민중에게 외면 받은 것과 대조된다. 그는 권력을 멀리하고 완고한 골품제 사회에서 신분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직접 요구하는 등 지행일치

의 실천에 앞섰던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원효는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이자 실천자였다. 특정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교학을 연구했다. 또한 원효는 정토신앙을 대중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틀에 매이지 않는 생활로 대중 속에 들어감으로써 역사와 민족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최대의 고승으로 자리 잡았다.

원효의 정토 구원관은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귀족불교를 전면으로 부정하였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민중에게는 엄격한 계율이나 어려운 이론보다는 정토를 지향하는 염원을 가지고 삶을 이어나갈 의지가 더욱 절실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노력으로 신라의 불교는 점차로 귀족 불교에서 민중 불교로 넘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효가 비록 지배 계급의 소유물이었던 귀족불교를 타파하고 민중불교로 이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시의 제도적 왕권불교에 대응하고 정토실현을 위한 민중의 공동체적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민중불교 결사와 같은 조직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특정한 스승이 없이 배웠다든 사실도 그의 통불교적 지향을 보여준다. 원효는 온갖 경론을 섭렵하고 주체적인 불교사상을 확립한 신라 최대의 학자로서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 일본 불교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요석공주와의 인연으로 파계한 원효는 스스로 세속인이 되어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삼국유사는 원효가 이렇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 노래를 지어 부르며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서 무지한 이들에게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줄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왕실과 귀족 및 소수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신라불교는 원효에 의해 비로소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밀교 유물



▲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鐵造毘盧遮那佛坐像)
 시 대: 통일신라
 재 질: 철재 (鐵材)
 소장기관: 철원 도피안사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는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도선대사가 창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도선대사가 철조비로자나불을 만들어 철원의 안양사(安養寺)에 모시려고 했으나 운반 도중에 불상이 없어져서 찾아보니 도피안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세우고 불상을 모셨다고 한다.

이 작품은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臺座)까지도 철로 만든 보기 드문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가름한 얼굴은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이다. 몸에 비해 가냘픈 손은 가슴 앞에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불상 뒷면에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남아 있어서 만든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그때 그시절

총기11년(1982) 3월 5일

군인포교 실시
 군부대에 단주, 죽비, 가정만다라(家庭曼荼羅), '밀교요람(密敎要覽)' 등 전달함

총기12년(1983)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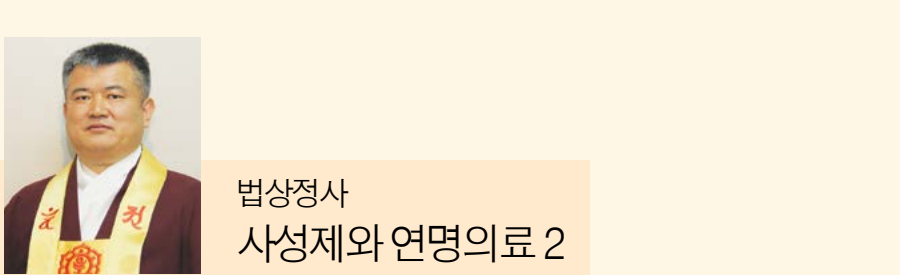
법륜회 발족 후 최초로 장학금 지급제도를 실시
 스승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공납금 전액 지급함

총기13년(1984) 3월 12일

본 중단 최초의 유치원 설립
 한미음유치원으로 원아 60명으로 개원함

총기17년(1988) 3월 10일

총복 과신에 불교총지중 수련관 기공
 조립식 건물 4동(수련관 2동, 부속사택 2동) 연건평 100평을 건립함



불교의 생사관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숨을 쉬고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본질을 규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불교 생명 윤리 총론에서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 윤리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생기론(vitalism) 입장에서 말하는 생물이란 '무생물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영혼'과 같은 형용할 수 없는 생명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모든 자연 현상을 물질 운동의 조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인 기계론(mechanism)의 입장에서 생물은 물질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생명 현상을 무생물계와 동일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로 되돌려 설명하였다. 기계론은 근대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에서는 생명을 유기체(organism)라고 본다. 유기체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각 부분간의 상호 작용이 무질서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 창발적 전일성(創發的全一性)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의존적 복잡성을 본질로 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가 된다.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상호 의존적 본질이야말로 불교의 생사관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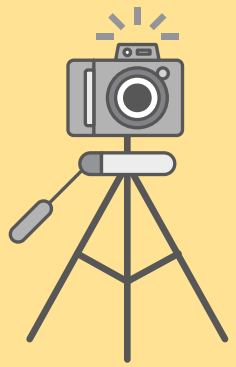
전통적인 관점에 보면 생명 본질은 생기론과 기계론을 말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 본질은 생명을 유기체로 보는 유기체론이 것이다. 불교 용어 중에 중생(衆生)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현상이나 생명체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중생을 의미하는 말인 ‘sattva’라는 개념은 ‘여러 생을 윤회 한다’, ‘여럿이 함께 산다’, ‘많은 연(緣)이 화합하여 비로소 생긴다’는 뜻으로 한 마디로 하면, ‘존재자(being, entity)’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생을 또 다른 의미로 범부(凡夫)·유정(有情)·중연화합생(重緣和合生)으로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다. 범부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유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의미하며, 중연화합생은 생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범부(凡夫)는 깨달음을 알지 못하

여 윤회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 즉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깨달아 해탈한 부처와 대비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윤회와 해탈’을 기준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것은 불교만의 독특한 방식이므로, 오히려 범부보다는 유정과 중연화합생을 생물과 생태계 또는 개체 생명과 전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유정(有情)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수용 능력을 갖추고 맹목적 삶의 의지 때문에 행동하는 것’, 정(情, 감수성), 행(行, 의지성), 업(業, 행위성)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인 유기체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변화인 대사(代謝)와 생명체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점차 변화하는 과정인 진화(進化) 생물이 자기와 동일한 개체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생식(生殖)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생명 현상은 고정불변의 연속적 변화 과정이며,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의 공(空)한 현상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불교적 의미에서 바라보는 개체 생명, 즉 유기체란 진여를 본질로 하여 정, 행, 업을 특징으로 하는 유정(有情,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정, 행, 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문제에서 죽음의 정의를 말할 때, 이러한 특징은 매우 중요한 분별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정, 행, 업을 잃었을 때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타의 출가는 궁극적으로 참나, 바로 진아(眞我)를 찾기 위함이었다. 참(진리)이란 불교에서는 ‘연기(緣起)’을 말한다. 연기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인과법칙, 인연법이라고 하며,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도 함께 소멸하며, 또한 세상의 모든 생명은 변하여 영원불멸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라는 상호 의존성을 설하였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는 물론이고 죽음의 실체까지도 전혀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원/탐/방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덕화사



▲ 사진 = ① 예전 덕화사 모습 ② 현재 덕화사 ③ 덕화사 현판 ④ 집공하는 주교 정사

감사와 은혜의 덕을 베푸는 사원



▲ 덕화사 약도

덕화사 오시는 길

- ▶ 지하철
부산 2,3호선 덕천역 10번 출구 화명동
방면으로 300m
- ▶ 버스
덕천교차로(08-064) 정류장 하차
일반버스 59, 111, 121, 23, 63
마을버스 북구3, 북구7, 북구7-2

이름이란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결국 이름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덕화사는 덕이 있고 화목한 절이라는 뜻이다.

특이하게도 덕화사는 동네 사람들의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음식이 있으면 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눠주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이름에 걸맞다. 부처의 공덕을 덕화사만의 방법으로 나누어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이처럼 덕이나 화목 같은 문자(文字)가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다.

덕천(德川)은 만덕천(萬德川)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만' 덕은 고려 시대의 절터인 만덕사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만덕사지 쪽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만덕천이다. 만덕천은 조선 시대까지 만덕계수(萬德溪水)라고도 불렸으나, 일제 강점기 초 행정 구역을 정리하면서 덕천이라 줄여 불렀다. 광복 이후 만덕천은 덕천천(德川)으로 불렀다.

덕천동은 북쪽으로 북동쪽의 금정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있고, 남쪽으로 백양산이 있으며, 서쪽으로 낙동강과 접한다. 동쪽은 만덕 고개와 연결되며, 만덕동에서 발원한 덕천천이 서쪽으로 흐르는데 대

부분 복개되어 있다.

또한 덕천동은 금융 기관과 상업지가 밀집한 부도심지이다. 관내에는 임진왜란 당시 감해와 양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왜군이 쌓은 일본식 성인 구포 왜성과 북구 문화방송 센터, 덕천 배수장이 낙동강변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덕화사 신정회 회장인 윤숙희 보살은 인터뷰 내 차분한 모습이었다. “처음 입교 후 다닐 때 제 첫 서원이 기억 납니다. 회사를 하는데, 제가 여유롭지 못해서 동전을 넣었어요. 근데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꿨어요. 소리 나는 회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딱 그것만 바꿨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매일 뵙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다른 거 아니고 절에 와서 부처님 뵙는 게 최고 공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너무 바빠서 정말 오는 길에 천수경 읽고 가는 길에 반야심경 읽으면서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인화 스승님이 계실 때 회장을 처음 맡았는데 대체 저한테 뭘 보고 맡기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 것도 몰라서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깐 일이 자꾸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경제 해탈

부터 육체적인 고난까지요. 다 부처님 공덕으로 남들은 돌아갈 길 저는 조금 더 빨리 온 거 같아요.” 윤숙희 보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이후 덕화사의 자랑을 부탁하는 말에 윤숙희 보살은 “보살님들이 모두 참 겸손하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에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닦는 것에 공통점을 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라고 대답했다.

덕화사에 다닌 지 35년 차인 한용심 보살은 “강산이 세 번 변하니까 이제 좀 햇빛이 보입니다. 업이 지중한 사람은 오래 닦아야 하는데 제가 딱 그 짝입니다. 35년을 닦았더니 이제 좀 햇빛이 들어오네요. 처음엔 좀 낮았었어요. 절이라는 데 그 흔한 불상이 하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총지종 법만 잘 맞는 법문이 없어요. 제가 참 많은 스승님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인법계 스승님께서 절 가르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진언염송을 하다 보니까 제 업이 보이더라고요. 몰랐으면 끝까지 원망만 하고 불신업을 더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제 좀 재밌어요. 닦을수록 빛이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띠었다.

덕이나 화목 같은 문자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덕화사(德和寺)



▲ 사진 = ⑤ 훈향정공(주교 시정 정사) ⑥ 자성일 법회 ⑦ 헌공불사(총기 35년)

덕화사의 머슴으로 불린다는 김길엽 보살은 온갖 행사에 술선수범하여 나선다. 김길엽 보살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모든 보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길엽 보살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며 인터뷰에 임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일로 많이 힘들어 할 때 원송정사님이 크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 힘들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사원에 나와 술가락만 놓으라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동시에 의지를 심어주셨어요. 지금은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술가락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길엽 보살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다.

덕화사 주교로 재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냐는 질문에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게 흘렀습니다.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보살님들의 숙제가 풀렸을 때는 유달리 보람감을 느낍니다.”라고 웃

으며 완만원 전수는 대답하였다.

현재 덕화사 주교인 시정 정사는 덕화사와 인연이 깊다. 2005년 통리원 재무부장으로 있을 때, 덕화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축 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원이었는데 주교를 맞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현재 시정 정사는 척추염을 앓고 있다. 병원에 가보면 생활이 힘들 정도인 엄증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별 다른 처방

을 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 시정 정사는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로운 종령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종단에 많은 발전이 있길 서원하며 각 사원의 스승님들 모두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교세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합시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박성라

주교: 시정 정사

전화: 051-332-8903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최해남 보살

부처님 공덕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불법을 실천해나가다

덕화사에 다닌 지는 15년이 되었고 40년 전 정각사에서 29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포부가 참 컸습니다. 내 몸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지만, 그 때는 치기어린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오만한 마음의 업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살아 보니까 인생이 꼭 제 마음과 같지는 않았습니 다. 무엇보다,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유산하였고, 그 이후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승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미 아이가 돌아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면서 조금 힘든 마음이 들 때는 너무도 쉽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도 살고 싶었습니다. 진실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는 대로 다 버렸습

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불러보고 부처님도 불러보고 알라신도 불러봤습니 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 이틀 날, 날이 새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저 위에 절이 하나 생겼대. 한번 가볼래? 가면 꼭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교회가 생겼으면 기독교 신자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생겼더라면 이슬람교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 제 몸이 안 좋을 때, 집 근처에 정각사가 생겼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와 부처님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부처님께서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정각사로 갔 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데 몇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은 걸려서 갔 습니다. 세 걸음 걷고 잠시 앉았다가, 계단 두어 개 오르고 또 쉬었습니다. 절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 습니다. 원래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에 가려고 하자 거짓말처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 다. 말을 듣지 않던 무릎과 관절이 움직이 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괴롭고 힘든 길이 었지만 꼭 가야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서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선 이미 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제 몸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보 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아이들과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작 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

나 반쯤 놓아버린 저를 되찾을 수 있었을 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느낀 것은 거대한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정각에 처음 갔을 때 계셨던 분이 정각원 스승님이셨습니다. 스승님을 만났던 그 순간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면 소원 들어준다기에 왔습니 다. 살고 싶 습니다.”하고 이야기길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계신 제 말을 중간에 한 번 끊지도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제 이야길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 짐을 느꼈습니 다.

그 후련해진 마음을 시작으로 스승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승님께서 3주 만 딱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 셴 습니 다. 저는 어차피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3주가 지나면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 셴 습니 다.

정말 거짓말처럼 3주가 지나니까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 것도 먹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상추쌈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다고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서 실 감도 잘 나지 않았습니 다. 그 때가 겨울이라 요즘과 달라서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불공 끝나고 집 에 가는 길에 밭에 상추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마음이 들었 습니 다. 그 이후로는 말 할 것 없이 일상천 리로 건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막힌 길들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은 물론 생활에도 제가 잡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다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선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은혜로 너무나 큰 덕을 얻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서 잘 기를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부처님을 믿고 낳으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재 저의 막내는 서른아홉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잃은 아이와 건강을 모두 다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덕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 다.

저는 진정으로 기적을 믿습니 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 습니 다. 더 이상 서원할 것이 없는 것입니 다.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해보니 참 어렵습니 다.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 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게 너무도 큰 공덕을 주셨기에 저는 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제 생명이 허락하는 한 계속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하길 서원합니다.

리라이팅: 박설라



김희애 보살

욕심이 없어야 진정한 불자이므로 욕심을 가장 먼저 버려야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불했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서야 시어머니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 에 그 사실이 어찌나 원망스럽고 또 화가 나는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상스러운 저주를 시작 전체에 퍼부으며 살 았 습니 다. 당시 큰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지만, 초기인자라 임신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 징집대상이었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보내면서도 속 말로 끔찍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욕을 했 습니 다. 몇 달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인과로 인하여 저는 어마어마한 인욕을 견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전장에서 죽기를 바란 저의 바람과 달리 남편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고, 저는 또 그런 남편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랬던 저의 과오로 인해 아들은 고행을 가져다주었고, 저는 그 고행을 온전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고행,

이라는 한 단어로 간단히 말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지 못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거나 싸움이 나서 동네 분란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사고를 치느라 여간 속 을 썩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총지종을 만나고 이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불공을 한 직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남편 앞 에 탑상을 차리고 큰 절을 울리며 그간 품어왔던 증오에 대하여 참회했습니다. 또 총지종 안에서 거듭된 참회를 한 끝에 마음의 평안과 옹고 그름을 배울 수 있었 습니 다. 나아가온 가족이 모두 총지종으로 제도가 되어 지금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한 가족 안에서 살고 있 습니 다. 큰 며느리만 해도 덕화사의 일등보살 에, 둘째 며느리는 관음사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 가족 모두가 총지종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 다. 현재 저는 손자가 열에 증손자는 여섯이나 가진 부자입니다. 아들도 손자들도 모두 번듯한 직업에 팬창은 벌이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바람은 아무 것도 없습니 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마음이 고마운 것은 바로 저희 큰 며느리입니다. 바람 잘 날 없던 아들 인생을 지혜와 슬기로 불들어주 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복한 가족이 되었지만, 맨 처음의 참회는 정말 어려웠습니 다. 정각원 스승님이 제 손에 염주를 쥐어줄 때에도, 머리로 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느 지 않아서 집으로 도 망쳤던 적도 있었습니 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신기하고 또 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소낙비가 쏟아지듯 저의 마음에도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났습니 다. 그동안 웅골차게 퍼부은 마음과 저주에 대하여 얼마나 크고 무거운 업을 지었는지에 대한 직시가 일어난 겁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총지종과 함께 했기에 그 깨달음이 비교적 빨리 온 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평생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음 생까지 간다면 더 무겁고 거대한 업보가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펴떡거리면서 참말 다 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저는 저의 큰아들 에게서 전화가 오면 항상 존대를 합니다.

제가 고행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 게 바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하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냐고들 묻 습니 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냐고도 묻 습니 다. 저의 답은 하나입니다. 먼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겠다는 마음이 그 답입니다. 언제 어디에 를 가든지 인사를 받을 생각을 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누구에 게든 기쁨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덩달아 아픈 곳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언제 이번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는 날까지 자식에게 애를 먹이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다른 비결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 다. 다른 사람이 나를 껴안아주고 힘닿고 시샘을 하며 고난을 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나를 인욕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또 다른 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 까. 저희 집 거실에는 옴마 니반때를 다라나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네 시에 다라니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데, 본전 앞에 가도 나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찌, 감히,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소구 역의보다는 제제난을 가장 많이 옮겨 됩니다. 첫째 서원은 언제나 국내만안입니다. 나라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라가 편해야 내 자식도 편하다는 믿음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서원을 드리는 것은 조상입니다. 조상이 있어야 내가 있고 또 내 자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관음사에서 오랜 시간 회장직을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에서 관복을 주는 것은, 업보를 소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마다않고 솔선으로 행했습니다. 집안 관련 불공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보살님들에게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소멸시키고, 은혜를 갚으려면 백 년도 모자란 세월이 겠지만, 내 마음 하나 부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저의 진심입니다.

우리 총지종 보살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정성으로 정법을 믿고 있으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욕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진정한 불자이므로 욕심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다급한 일이 있으면 사분 정진이라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분 정진을 한 적이 있는데 정진을 마치자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일이 순탄하게 풀렸지만, 이를 통해 밀교법을 또 한 번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밀교법은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다가 우리 첫째 아들 덕에 이런 좋은 밀교법을 만났나 싶어, 또 한 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각각의 마음과 고난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도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모두 다 함께 성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리라이팅: 황보정미



현대 그린 모터스

덕화사 교도

대표 최영재

자동차의 모든것!!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36-5 ☎ 051)851-8204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장/
법전사 주교/ 철학박사)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은 대승보살 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십선계가 대표적이다. 대승과 동일하게 십선을 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십선을 지혜 방편의 도라고 한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대승의 대표적인 보살계인 삼취정계가 『대일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행교설과 수법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 살생 등의 불선(不善)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승의 계율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십선계를 범했더라도 지혜방편과 대비(大悲)에 의한 것은 범계(犯戒)가 아니라는 입장은 대승과 동일하다. 따라서 밀교는 대승의 교리 뿐만 아니라 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승과 달리 『대일경』의 계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첫 번째, 삼귀의의 경우 초기불교, 대승불교와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즉 삼귀의를

삼신(三身)과 삼인(三印)에 배대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삼귀의를 수지하는 목적이 보리심의 증득과 이타행에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대승의 십중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따라서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이 지니는 독자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는 계이며, 두 번째는 삼매아의 계이며,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삼밀수행과 다양한 수법과 작법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일경』에 설해지는 교설은 교리적인 면과 계율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교리와 사상적인 측면은 대승의 교학을 계승하고 여기에 밀교의 독자적인 내용으로서 보리심과 삼매아를 바탕으로 한 계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이 삼밀수행과 작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삼밀을 통해 아사리의 위를 갖추게 되며 보리심을 증득하기 때문이다. 율장에서 승가생활의 규범으로서 규칙이 정해졌다면, 『대일경』에서는 수행의 규칙, 즉 의칙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율장은 규칙을 중시하고, 『대일경』은 수행 의칙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칙을 의례라 부른다. 의칙을 지킴으로써 구경에 보리심을 증득함과 동시에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다. 즉 의칙은 수행교설과 계의 실천을 위한 방편이다. 그런 점에서 삼밀수행의 의칙과 계율의 실천은 동체적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일경』에 설해진 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율의 근본입장을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발보리심의 계이며, 둘은 삼매아로서의 계, 세 번째

는 방편으로서의 계라 정리할 수 있다. 보리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발보리심의 계라 한다. 발보리심은 『대일경』의 계율 가운데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이다. 또한 『대일경』의 중심교설이자 사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리심과 계는 매우 밀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일경』의 계율을 삼매아계라고도 부른다. 삼매아는 불(佛)과 하나가 되는, 즉 평등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계를 통해서 삼매아를 이루기 때문에 삼매아계라 한다. 불(佛)과 평등해진다는 것은 곧 보리심의 증득을 의미하며, 이는 삼밀이라는 방편으로써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삼삼평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삼삼매아, 삼밀가지, 삼밀상응이라 하며, 그 이념적 계율이 삼매아계이다. 삼매아계는 3종의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며, 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삼중금과 십중금이다. 이를 통해서 삼매아를 이루고 보리심을 증득하므로 『대

특별연재 법경 정사 철학박사 학위논문 요약(하)

일경』의 계는 곧 삼매아의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삼매아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행법이 시설되는데, 그것이 곧 삼밀수행이다. 이를 방편이라 한다. 『대일경소』에서도 방편은 삼밀의 근원이라 하였다. 따라서 계를 지니는 것은 곧 방편선교를 갖추는 것이며, 그 방편을 통하여 보리심을 증득하게 된다.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는 삼구법문의 구절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즉 방편은 보리심의 증득과 대비행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편이 삼밀과 계율의 실천이다. 따라서 밀교의 계는 방편의 계이자 교설이다. 이와 같이 『대일경』의 계는 보리심의 계, 삼매아의 계, 방편의 계이며, 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리심의 증득이 곧 삼매아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한 수행방편이 곧 삼밀수행이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체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보리심,

삼매아, 방편의 계라는 근본입장은 곧 삼구의 법문에 귀결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계가 바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삼매아계의 삼중금과 십중금이다. 이들 계율에서 다음과 같은 사상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보리심사상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보살사상이며, 셋째는 자비사상이다. 즉 보리심의 증득과 이타적 보살행-대자비의 실현이라는 사상적 의미를 지닌다. 그 사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수행방편이 바로 삼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작법들이다. 따라서 『대일경』에서 계율이란 계목 뿐만 아니라 삼밀을 수반하는 수법과 작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일경』에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곧 삼밀수행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경 정사의 철학박사학위논문을 요약 하여 상·하 2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사자의 서(1)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것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인도와 중앙아시아 인근국가들의 고전들이 서구학계에 알려지면서 비롯되었다. 종교와 철학, 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평화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던 과정은 수많은 불교유물과 문헌들이 박물관 전시를 이유로 역사적 고증 과정 없이 도굴꾼들에 의해 파괴되고 반출되는 것이었다. 서양에 소개된 불교문헌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른 책 가운데 하나는 ‘사자의 서’이다. 1927년 Oxford University Press에 의해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란 이름으로 소개된 책은 출판되자마자 서구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근대 산업문명의 발전과 철학의 변동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서구 정신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구의 전통종교에 대한 불신은 인간의 사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

다. 한국에 ‘사자의 서’가 소개된 것은 1984년 백봉초의 번역이 최초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한국의 출판계는 종교, 철학, 정신계와 관련해 많은 시험적 책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양이 전쟁 직후의 시대적 방향 가운데 불교가 소개된 것처럼 한국도 격동의 시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신계를 탐험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사자의 서’가 출판된 시기에 석지현 스님의 ‘밀교’도 번역되었다. 필자가 밀교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당시 총지중 통리원을 방문하여, 종단에서 출판한 회귀 밀교서적을 선물 받은 것도 그 시절이었다. ‘사자의 서’를 처음 읽었을 때 당시에는 그 책이 제시하는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사자의 서’는 불교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저술된 것이며, 특히 인도 후기 밀교 시대의 심오한 비전이 담겨져 있다.

‘사자의 서’를 이해하려면 인도와 티베트불교의 전체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사자의 서’는 티베트어로 ‘바르도 퇴돌 첸모 Bardodrol Chenmo’라고 한다. 바르도는 중유中有, 또는 중유中에서 번역되고, 퇴돌은 ‘청음으로 인해 해탈에 이른다’는 뜻이다. 첸모는 대본大本이란 의미를 갖는다. ‘사자의 서’의 저자는 8세기 인도 우디아나 출신의 빠드마삼바와 Padmasambhava로 알려져 있다. 부왕인 인드라부미 Indrabhuti 왕은 자식이 없었으나 산책중 화원의 연꽃에 어린아이가 떠받쳐 있는 것을 보고 양자로 거두었다. 때문에 빠드마삼바와는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뜻에서 연화생蓮華生 대사로 번역하기도 한다. 인드라부미와 빠드마삼바와 모두 인도 밀교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인드라부미왕은 ‘지혜성취집’에서 성불을 위해 공성의 이해와 오지五

智의 성취를 강조했다. 빠드마삼바와는 산따라끄시따를 도와 티벳에 불교가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산따라끄시따는 티벳에 불교의 계율과 경전을 전하려 하였지만, 토착신을 믿던 정치세력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산따라끄시따는 빠드마삼바와를 대동하여 티벳에 도착한 후 알룽창포강을 일주일 동안 거꾸로 흐르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보였고, 티베트 토착신들을 굴복시켜 호법신으로 인도하는 신통을 보였다. ‘사자의 서’는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이다. 티베트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후 의식으로 49제 대신 ‘사자의 서’를 49일 일정에 맞추어 독송해 들려줌으로써 망자가 해탈에 이르거나 왕생극락, 또는 인간의 몸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자의 서’는 빠드마삼바와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다. ‘사자의 서’저술 시기는 8세기경이지만 인간 세상에 책이 출현한 것은 14세기 까르마 링빠Karma Lingpa라는 예지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티베트불교 닝마빠의 대장보전은 불경이나 조사들의 저술들이 몇 세기 지난 시절인연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이다. 대장문헌의 역사적 진위를 가리는 것은 사가들의 몫이지만 대장보전의 종교적 권위는 닝마빠를 지향해온 정신적 유산이다. ‘사자의 서’는 후기밀교를 구성하는 심



리학, 의학, 생리학과 더불어 ‘구사론’, ‘유가사지론’에 담긴 불교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대의 학문적 분석에 의해 대장보전의 시대적 배경이 8세기 후기밀교시대로부터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사자의 서는 크게 ① 죽음에 이르는 과정; ② 중유가 성립되는 과정; ③ 전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자의 서 첫머리에는 삼보三寶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예경으로 시작된다. ‘사자의 서’에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 삼계의 유정이 존재하는 방식과 육체를 가진 유정으로 전생하게 되는 원리와 과정, 그리고 전생과 죽음, 중유의 단계에서 해탈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일곱 가지의 사례로 요약한

다. ‘사자의 서’에는, “능력이 뛰어난 요가의 실천자들은 육체를 가진 채 해탈에 이르며 생전에 수행을 완성한다. 능력이 뛰어난 유가자들은 생전의 지도와 실수實修 사후에 중유의 과정을 경과하지 않고 바로 해탈에 이른다”라고 설한다. 중유를 거치지 않는 다른 해탈의 방식에 대해서는, “생전의 인연으로 죽음의 찰나, ‘뽀와’를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 해탈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뽀와뽀는 생전에 죽음의 찰나에 해탈에 이르기 위한 관정과 특별한 수행법이다. ‘사자의 서’에는 이외의 모든 유정들은 사후 반드시 중유의 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진다고 설한다.

정성과 신뢰로 만드는 전통떡방앗간 “대동떡방”



대표 임옥분(정각사 교도)
주문전화: 051-524-3460 / 010-7185-3460

유아교육의 첫걸음은 **아성유치원**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과 전문화된 시설

엄마와 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원장 박정선(박정희) 정각사 교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 11 ☎ 051-553-0809

동해중 소식

2017학년도 제48회 동해중학교 131명 졸업식 열려

졸업 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와 같은 삶을 생활해 달라



동해중학교 제48회 졸업식을 2월 12일 10시 30분 본교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재단 이사장이신 인선 통리원장, 동해중 탁상달 교장을 비롯한 이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회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본교 출신인 동래지역의 이진복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동문회 회장인 김진도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금번 제48회 졸업식에는 손병규 군이

졸업 최우수상인 영광의 이사장 상을 수상하였다. 그 뒤를 이어 박준상, 최현석, 어형주 군이 영예의 학교장 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졸업생은 131명으로, 졸업생 누계 17,9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동래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였다.

이 밖에 졸업생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공주 한일고를 비롯한 부산과학고와 국제고, 해운대고, 부산외국어고, 마이스터고 등 뛰어난 진학 성적을 거두어 학부모들과 총 동문들로 하여금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진학 성적 결과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지도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고무적인 것은 장학금 수혜자가 무려 31명이었는데 정각사 자비회 장학금 수혜자 2명을 비롯하여 불교총지종 장학금 5명, 안국선원 장학금 1명, 동해중 총동문회 장학금 5명, 김희철 동문 장학금 7명, 동해중학교 교직원 장학금

15명, 동해중학교 교직원불자회 장학금 1명 등 모두 1,1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졌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동해중학교에서 갈고 닦은 소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도 결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동해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은 “사나이다운 기백과 열정으로 늘 목표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한 학교생활과 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생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함도 배우면서 생활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졸업 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와 같은 삶을 생활해 달라”며 졸업 후에도 모교를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동해중제공)



평창올림픽 한국불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월정사 각국 정상들의 ‘핫플레이스’ 로 떠올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정부 관심 및 지원 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오대산 월정사와 강릉 보현사 등 다수의 명찰이 위치한 강원 지역서 열려 우리 불자들에게는 더욱 더 의미있는 행사로 다가왔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멋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이 기간 동안에는 한눈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강원지역 주요 사찰을 통해 각종 명상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한 것과는 달리 아쉬움이 크다. 월정사에서는 3년 전부터 해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 신청

을 했지만, 연달아 퇴짜를 맞았다.

이번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좋은 기회였다는 증거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발걸음에서 이미 증명 됐다. 월정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정상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 체험을 위해 잇달아 방문해 이미 ‘평창올림픽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월정사를 찾아 사찰음식 만찬을 즐겼고,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월정사 대법륜전서 정부 여권 인사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을 비롯한 IPC 위원들도 3월 7일 월정사에서 역시 만찬과 문화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정상들은 다도와 명상 등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도) 3월 18일까지 평창 월정사를 비롯해 낙산사와 백담사, 삼화사, 인흥사 등에서 특별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 입장

권 소지자는 동반 1인 포함 80%가 할인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대회기간동안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눈에 띄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강원도 지역 사찰에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들을 위해 사찰 안내 봉사를 했으며, 국제포교사회도 올림픽 현장서 자원봉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어찌보면 스포츠 선수와 수행자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끝없는 자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운동 선수들도 수면과 음식 그리고 즐거이고자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치열한 용맹진과 같은 연습에 몰두한다.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설 때 오는 수행자의 희열과 결승선을 통과하고 성취하는 선수들의 희열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수행자와 스포츠 선수의 마음이 어찌 둘일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참가 선수들은 올림픽 축제의 장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자이고 수행자이

다.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불교계는 한국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한국의 불교문화를 꼭 불교라는 한 종교에 국한돼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 왜냐하면 한국불교의 전통문화 속에는 다도와 참선, 명상, 사찰음식 등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중에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속출한다. 이에 우리 불교의 전통 문화는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제 한국불교의 우수함이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탄수화물 섭취 줄이면
지방간 감소한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을 해결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메디컬 뉴스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TH)의 아틸 마르디노글루 박사 연구팀이 비만한 NAFLD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린 등칼로리 다이어트(isocaloric diet)를 2주 동안 계속하게 했다. 등칼로리 다이어트란 탄수화물, 단백질 또는 지방을 매일 똑같은 양 섭취하는 것이다.

마르디노글루 박사는 실험 결과 간의 지방 대사가 개선되면서 2주 후에는 지방간이 “급속히” 그리고 “크게” 줄어들었고, NAFLD 악화와 관련이 있는 염증표지, 특히 인터류킨-6와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내 세균총(gut microbiota)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키는 혈중 염산 수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르디노글루 박사는 이러한 다이어트가 모든 NAFLD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으로 방치하면 간 섬유화-간 경화-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요인은 과체중, 비만,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셀 대사(Cell Metabolism)’ 최신호에 실렸다. 박민정 기자

초경 · 폐경 빠르면
심혈관질환 위험 높아

47세 이전 폐경 여성 심혈관질환 위험 33%
뇌졸중 위험 42% ↑

초경 또는 폐경이 이른 여성일수록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사이언스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샌 피터스 의학 교수 연구팀이 영국 인체자원은행(UK Biobank)에 수록된 여성 26만7천440명(40~69세)의 7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가 시작됐을 때 전체 여성의 평균연령은 56세로, 초경이 시작된 연령은 평균 50세였다.

이들 중 51%는 상류층(30%)이었고 60%는 전혀 담배를 피운 일이 없었다. 85%가 임신했고 44%는 자녀가 2명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한 연령은 평균 26세였다. 이 중 25%가 유산을, 3%는 사산을 경험했다.

피터스 교수는 12세 이전에 초경이 시작된 여성은 13세 이후에 시작된 여성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0% 높았고, 47세 이전에 조기폐경이 온 여성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33%, 뇌졸중 위험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에 유산을 겪은 여성은 1회 유산마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6%씩 높았고, 사산을 겪은 적이 있는 여성은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22%, 뇌졸중 발생률이 44% 높았다.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12%, 자궁적출 전에 난소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스 교수는 이런 갖가지 생식 관련 요인들은 심혈관질환 위험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COMPOSE COFFEE



변화하는 카페 문화의 방향성을 지휘하다

컴포즈커피 COMPOSE COFFEE

부산 가야점

- 신선한 맛 (Taste)
- 부담없는 가격 (Cost)
- 기존 사이즈 2배의 양 (Am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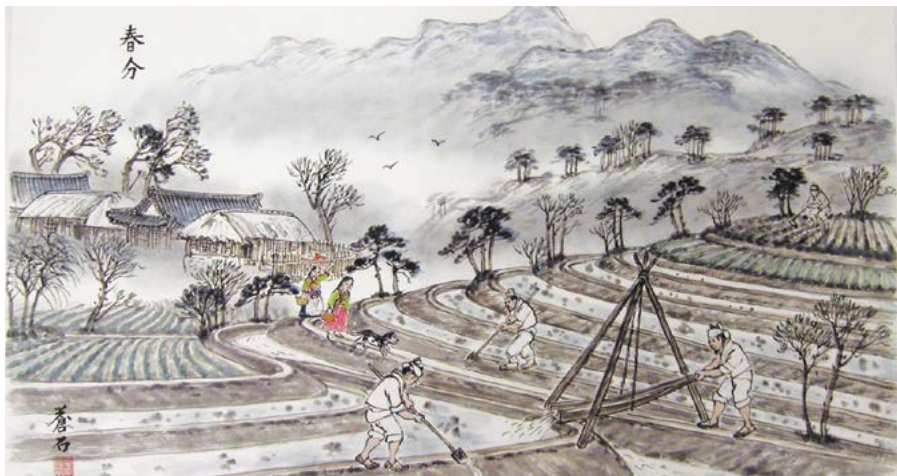
대표 김우정(자석사교도) 010. 2441. 1252

부산시 부산진구 대학로 13

절기 이야기

춘분

삼밀사 주교 남해 정사



춘분은 24절기 가운데 네 번째로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 위에 왔을 때이며, 음력 2월, 양력 3월 21일경이다. 태양은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고 지구상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춘분점은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대개 입춘부터 봄이라고 하지만 유럽은 춘분부터 봄으로 본다. 양력으로는 3월 21일 전후지만 음력으로는 2월이라 꽃샘추위가 남아 있는 때로 "2월 바람에 김치독 깨진다", "꽃샘에 실늬는 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이때 한차례 남은 추위는 동짓달처럼 매섭다.

춘분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빛의 양이 많아져서 썩이 트기 때문에 예부터 농부들은 이날을 '농경일'로 삼았다. 해안가에서는 영동할머니가 내려오는 날

로 여겨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빌었다. 또 이웃끼리 파종할 씨앗을 바꿔가며 뿌리기도 하였으며, 봄 내음을 맡고 땅을 비집고 나오는 들나물들을 캐러 가기도 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춘분의 날씨를 통해 그 해 농사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조선시대 유증림이 쓴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에 따르면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며,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해진다. 해가 뜰 때 정동(正東)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한다.

선조들은 이날 운기(雲氣)가 푸르면 해충 피해가 생기고, 붉으면 가뭄 피해가 있으며, 검으면 수해가 나타나고, 누렇다면 풍년이 된다고 점쳤다. 또 이날 풍동이 불

면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해지고,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해진다고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춘분일 앞뒤로 3일씩 7일간을 '봄의 피안(彼岸)'이라 하여 극락왕생의 시기로 보았다. 춘분은 해가 정동쪽에 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는 날인데, 불교에서 해가 뜨는 동쪽은 현 세계, 해가 지는 서쪽은 서방정토, 즉 아미타부처님이 다스리는 극락정토로 생각해서 이 때 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거나 공양을 한다. 고인들이 정서쪽의 서방정토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일본에서는 히간(彼岸)이라고 하여 춘분과 추분을 일컬으며, 불교의 극락왕생의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집집마다 성묘를 간다. 히간은 이날을 중심으로 전후 3일을 합친 7일간(1년 14일)을 불교의식으로 히간회(彼岸會)라고 한다. 7일간 중에 중간 날인 춘분이나 추분에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극락왕생을 빌고, 나머지 6일은 불교에서 보살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의 육바라밀 실천 수행법으로 구성된다.

기독교에서는 춘분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회에서는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뒤 첫 주일을 부활절로 정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의 경우 4월 1일이 부활절이 된다.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라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기본적으로 자신감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자신감 없는 선수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한다.

이 같은 행동, 생각, 느낌, 말들 속에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원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 생각, 행동, 느낌들을 항상 탐색하고 지각하는 반면에,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주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공경험하기, 긍정적 피드백(칭찬) 받기, 성공경험에 대한 대리 경험하기, 신체적 활성화 등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 낮은 자신, 자기비하, 열등감 등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과 실패 경험에 대한 대처 방식에 따라 마음, 성취 및 인생 등이 달라진다. 좌절과 실패 경험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만 환경 탓을 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된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에 대한 강인성 혹은 효율적 대처 능력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회복탄력성(resilience)

이다.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역경, 시련 및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성장/발달하게 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탄성을 가지듯이 사람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리적 탄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인생 사건들을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거나, 헤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를 가정해보자. 이 때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 나에게 긍정적인 면은 없는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마음 한 번 돌리니 극락이 여기에 있다'라는 격언처럼 실패나 좌절이라는 사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해결책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섣망, 해결책이 없더라고 이런 긍정

적인 해석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여가면 장기적으로 행복감과 성취수준을 올라가게 된다.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보호 요인, 가족 환경 보호 요인, 지역 환경 보호 요인 등이 있다.

탄력성은 직면한 실패, 좌절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이러한 보호 체계 자원과 관련성이 더 높다. 즉, 보호 자원이 거의 없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역경에 직면해서도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고통 받지만, 보호 자원들을 대부분 또는 모두 가진 사람은 심각한 역경을 최소한의 혼란으로 다룰 수 있다.

한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기수용하기, 개인적 성장하기, 의미있는 삶의 목적 설정하기, 환경 통제력 높이기,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목표하고 원하는 대로 삶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 등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회복탄력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실패, 역경, 스트레스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 우울, 실패와 같은 인생 경험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사건에서 벗어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라. 즉, 나의 행복과 성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⑩

梅蘭菊竹



덕광(실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매화그리기

3. 가지그리기

- ① 굵은 가지는 담묵으로 가는 가지는 농묵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줄기나 가지는 적절한 위치에서 교차하는 것이 좋으며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길어도 굵기도 같으면 안된다.
- ③ 매화의 줄기나 가지는 여자식이나 우자식이라 하여 교차시킨 구도가 좋다.

③



여자식(女字式)

④



우자식(又字式)

- ④ 줄기나 가지를 그릴 때 중간 중간 꽃을 그릴 자리를 비워 놓고 그리는 연습을 하자.



나인쓰리

르네 1층
1093/1094

여성의류 도매전문



대표 김 정 애 (덕화사 교도)

르네1층 2,3번가 에스컬레이터 옆
☎ 051)319-5094





왕불심
초교리학

인간의 마음을 찾는
서양 심리학(心理學)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대뇌에 영혼이 작용하여 마음이라는 정신 활동이 인간에게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대뇌는 생명 기운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 이전에 활동했던 철학자 엠펬도클레스(Empedocles, BC 490~430)는 심장이 혈관계통의 중심이고 혈액에 영혼과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인간의 마음은 대뇌, 심장, 혈액 속에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다.

근세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과는 따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며 “몸(신체)은 완전한 기계이다. 관의 다발 같은 신경은 대뇌로 집중되고 그 속에 인간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이 생명의 기운은 심장에서 태워져 대뇌로 보내지고 다시 몸속으로 흘러간다. 동물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신체 이외의 독립된 마음(心)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신체와 마음은 대뇌에서 서로 연관을 맺고 활동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심신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어떻게 독립된 마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

기도 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이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음 없이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며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마음은 의식(意識)을 의미한다. 의식이란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을 알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 즉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마음은 몸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일원론자들과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여 상호 서로 관계하며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같은 이원론자들도 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신학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근세 이후, 과학이 발달하여 뇌가 인간의 정신과정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임이 증명되어 일원론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일원론의 우세는 진화론자들에게 인간과 동물을 같은 선상위에 놓고 이해하게 만들었다.

즉, 동물은 의식이 전혀 없어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비해 약소한 의식을 가진 양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양학의 주장이다. 동양학에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지체로 하나임을 인식하지 못하나 본래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 서양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분트(W. M. Wundt, 1832~1920)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함에 있어 타이어, 엔진, 핸들, 연료탱크 같은 자동차의 구성품들의 관찰을 통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기능 같은 전체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듯이 인간의 의식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심리학을 ‘구성주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1879년 독일의 라이프치히대학에 심리학 실험실이 분트에 의해 만들어졌고 심리학계에서는 그해를 현대심리학이 첫 출발한 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 후 분트의 제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간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기능주의 심리학이 시작된다.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같은 수많은 심리테스트가 개발되어 나오는 것도 사회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중시하는 미국 기능주의 심리학의 특징이다.

1930년대 기능주의 심리학을 밀치고 나온 행동주의 심리학은 미국 심리학의 주류를 이룬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구성주의처럼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자체 즉 속도, 주행거리, 운전을 위한 핸들 및 클러치 조작 등에 우선을 두고 관찰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연구하듯이 대상의 움직임을 보고 대상의 심리상태를 연구하는 심리학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는 당시 35세의 미국학자 왓슨(John B. Broadus Watson, 1878~1958)으로 자국으로 나타난 행동을 연구하여 인간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고 연구 하였기에 이를 행동주의 심리학이라 칭했다.

그는 종종 흰쥐를 실험에 사용했는데 흰쥐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생각의 적극적인 표현인 행동은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의식 없는 심리학’이 탄생했다.

심리학은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인데 의식 없는 즉 마음 없는 심리학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대단한 발상이다.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벽룡사 교도, 故 이희숙 보살 사갑제(死甲祭) 봉행

벽룡사 신정회 총무 양재범 각자는 2월 4일 자정일 12시에 8년 전 열반한 부인 고 이희숙 보살의 생일을 맞아 사갑제를 지냈다. 이날 사갑제에는 가족들과 이제 100일

이 갓 지난 외손녀, 벽룡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한국일생의례사전에 사갑제는 환갑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사후에 돌아온 환갑 날에 지내는 제사이며 ‘갑

사甲福’ 혹은 ‘망갑제亡甲祭’라고도 한다. 환갑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자손들은 이를 애통해하여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셨을지라도 환갑이 되는 해를 기억해 사갑제를 지낸다. 벽룡사=조귀자

만다라합창단, 연습마치고 한천박물관 방문 체험

부산 경남 합창단인 만다라합창단(법상인 정각사 주교) 32명이 1월 30일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밀양 한천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만다라합창단은 한천박물관을 둘러

보고 체험장에서는 한천으로 양갱을 만들어 보는 생활 체험을 하는 등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한천 테마파크는 한국 한천산업의 발상지인 밀양시 산내면에 조성되었다. 한

천은 우뚝가사리나 꼬시래기와 같은 홍조식물을 뜨거운 물로 끓여 추출시킨 액을 여과한 후 응고, 동결, 융해, 탈수, 건조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만든 식품이다. 정각사=한미옥

단음사 교도, 사랑의 줌도리 운동 펼쳐 자비 실천

단음사 교도인 영천새마을금고 전 명환이사장은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모금한 쌀 100포(2,000kg)를 영천일대의 동사무소 및 영천시장에인 복지관을 찾아 저소득 가정, 소년소

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했다. 전이사장은 수년째 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사랑의 줌도리 운동은 옛날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매 끼니마다 한 술

갈씩 절약해 모은 쌀을 저축하는 ‘절미저축운동’으로 이렇게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 주는 운동이다. 단음사=권순복

화음사 초대회장 강판례보살 49재 봉행

2월 9일 화음사에서는 12월 23일 열반하신 화음사 초대회장 강판례 보살님의 49재가 봉행되었다. 유가족, 가족 만다라합창단, 화음사

교도등 80여명이 동참하여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극심한 환파가 계속 되었으나 이 날은 마치 고인의 마음인양 날씨가 풀려서 고인의 훈훈한

애기가 오고갔다. 먼거리도 불사하고 달려온 만다라 합창단의 음성공양은 최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각사=이상록

생일을 축하합니다.

2월 11일 통신원 이상록(정각사) 보살님,
2월 18일 성순이(총지사) 보살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지사 묘심해 전수 부친상. 2월 10일. 별세.
49재는 3월 30일 총지사에서 봉행. 총지사=최해선

신정회 간부 취임 축하합니다.

2월 18일 수계사 신정회 회장 정옥선, 부회장 윤본연, 총무 이춘자, 간부 선출.

자격증 취득 축하합니다.

2월 22일 통리원 김태원 계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결혼 축하합니다.

수계사 서병식 각자님과 이옥복 보살님의 아들 서성기(41세) 불자가 3월 3일 결혼합니다. 수계사=정옥선

총지 만평

김홍균 작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525 세곡리엔파크5단지 관리동 | 교육상담 ☎ 02-445-2326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아이들의 웃음을 우선시 하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초록 어린이집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초록 어린이집입니다”

- 보육대상 만1세 ~ 만4세
- 특색교육
 -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차별화된 인성교육
 - ★ 자연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교육
 - ★ 곤충과 식물들을 관찰하는 생태교육

- 건강식단
 - ★ 깨끗하고 바른 먹거리 식단제공
- 우리원의 약속
 - ★ 건강한 어린이
 - ★ 지혜로운 어린이
 - ★ 예의바른 어린이

신 행 체 험 수 기 공 모

■ 대상 : 불교총지중 교도 누구나

■ 공모기간 : 총기 47. 4. 30까지

● 신행체험 내용:

매월 월초불공, 신년불공, 대학입학시험, 영가천도, 상하반기 불공, 허물불공, 차시불공, 그 외 여러 가지 불공공덕(가피)

● 공모 원고료 : 채택된 녹음파일, 수기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1) 수기원고 : 원고지 15매, A4 2장 기준

2) 녹음파일 : 녹음시간 5분 기준

● 접수 : 불교총지중 통리원(종보실)

녹취파일 : pantha@naver.com 법일(윤승호)

※ 응모한 신행체험, 녹음, 수기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원고 작품에 관한 출판권은 불교총지중에 있습니다.

기 아 자 동 차



담 당 김 홍 수
(덕화사교도)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505(모라동) ☎ 051)303-9100